

#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체능계열>

## 1.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 [가]

군주가 신의를 지키며 기만책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칭송 받을 만한 일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험에 따르면 우리 시대에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은 신의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책을 써서 인간을 혼란시키는 데에 능숙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 맞서서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방법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둘째 방법은 짐승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로는 불충분하므로 후자에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모름지기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선 여우가 돼야 하고, 늑대를 혼내 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자의 방식에만 의지하는 자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또 지켜서도 안 됩니다. 이 조건은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 온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사악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약속에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군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항상 둘러댈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근래의 무수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평화 조약과 약속이 신의 없는 군주들에 의해서 파기되고 무효화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여우의 방식을 모방하는 법을 가장 잘 이는 자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다운 기질을 잘 위장해서 숨기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숙한 기만자이며 위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들을 준수한다면 신생 군주도 오래된 군주처럼 보이게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국가에서 좀 더 안정되고 견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 [나]

모든 합리적 행위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 행위가 그 목적을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는 만큼,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행위의 수단을 결정해 나가는 만큼 행위는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목적의 선택이다. 이 원리를 정치적 활동의 영역에 적용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이나 이상 국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궁극적인 목적이 윤곽이라도 잡힌 후에야, 우리가 목적하는 사회의 청사진 같은 것을 손에 넣은 후에야 비로소 그 실현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고려할 수 있고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이상에 대한 플라톤적 신념만이 유토피아적 접근법을 실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토피아적 접근법에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전면성인데, 즉 돌맹이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루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사회악을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한다는 확신이며, 품위 있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회 제도를 완전히 근절해 버려야 한다는 확신이다. 그것은 비타협적인 급진주의이며, 탐미주의이며, 완전주의이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낮고 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추함이 전혀 없는 세계, 참으로 아름다운 신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이 있다.

### [다]

“그 노파한테서는 언제든지 돈을 꿀 수가 있어. 유대인 못지않은 부자라서 단번에 5천 루블도 내줄 수 있는 여자가. 그런데도 1루블짜리 전당물조차 마다하지 않거든. 우리 친구들도 그 노파를 자주 찾아가고 있어. 그런데 무서울

정도로 인색한 여자지…….”

그리고 그는 그녀가 얼마나 사악하고 변덕스러운지 말하기 시작했다. 단 하루라도 기한을 어기면 물건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물건 값의 4분의 1밖에 안 빌려 주고, 이자는 한 달에 5부에서 7부까지 받는다는 말이었다.

“난 그 저주스러운 노파를 죽이고 도둑질을 한다고 해도, 결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 열을 내면서 대학생이 덧붙여 말했다.

장교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지만, 라스콜니코프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물론 내가 한 말은 농담이었지만, 생각을 해 봐.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의미 없고, 하찮고, 못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병든 노파가 있어. 그 노파는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 있으면 저절로 죽게 될 거야. 알았어? 알아듣겠어?”

“그래 알았어.” 장교는 흥분해 있는 친구를 주의 깊게 보면서 대답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말 싱싱한 젊은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 젊은이는 도처에 있어! 그리고 수도원으로 가게 될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지고 고쳐질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선한 사업과 계획들이 있단 말이야! 어찌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수십 가정들이 극빈과 분열, 파멸,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이 모든 일들이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빼앗은 돈의 도움을 받아 훗날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작은 범죄 하나가 수천 가지의 선한 일로 보상될 수는 없는 걸까?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 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의 죽음과 수백 명의 생명이 교환되는 셈인데, 이건 간단한 계산 아닌가! 그 허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노파의 삶이 사회 전체의 무게에 비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그 노파의 삶은 바퀴벌레와 이(蠶)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어찌면 그보다 더 못하다고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그 노파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잡아먹고 있잖아. 그 여자는 바로 얼마까지만 해도 핫김에 리자베타의 손을 깨물어서 거의 잘라 낼 뻔했다고!”

“물론 노파는 살 가치가 없지. 하지만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 장교는 지적했다.

“에이, 이봐, 자연을 변화시키고 조정하는 것은 인간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편견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 버렸을 거야. 사람들은 ‘의무니,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하지. 난 의무와 양심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냐. 다만 우리가 그 의무와 양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지.”

## [라]

본분으로 돌아가라 함이 어찌 문장만 그렇겠습니까? 일체의 온갖 일이 다 그렇습니다. 화담 서경덕 선생이 밖에 나왔다가 집을 잃고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만났더랍니다. / “너는 어제 우느냐?”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다섯 살에 눈이 멀어 이제 스무 해가 됩니다. 아침에 집을 나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천지 만물이 맑고 또렷하게 보이지 뵈니까. 너무 기뻐서 돌아가려고 하니, 골목길은 갈림이 많고 대문은 다 같게 생겨서 제 집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니다.”

선생이 말했다. “내가 네게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마. 도로 네 눈을 감아라. 그러면 바로 네 집을 찾을 수 있을 게다.”

그러자 눈을 감고 지팡이를 두드려 제 걸음을 믿고서 바로 집을 찾아가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색깔과 형상이 전도(顛倒)되고, 기쁨과 슬픔이 작용이 되어 망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지팡이를 두드리고 제 걸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분수를 지키는 관건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보증이 됩니다.

## [마]

유 씨는 부이를 삭이느라고 한동안 잠자코 바느질만 하다가 이윽고 목소리를 훨씬 보드랍게 이야기를 꺼내 놓는다.

“그리구 이건 말이야 아직 네한테까지 할 건 없지만 기왕 말이 난 길이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한대더라……. 혼수 비용을 자기가 맡끔 대서 하기도 하려니와, 또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게<sup>1)</sup> 지낸다니까, 원 그래서야 어디 쓰겠냐구, 그럼 이제 혼사나 치르구 나서 자기가 돈을 몇 천 원이구(유 씨는 몇 천 원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대

다리께시니, 느이 아버지더러 무어 점잖은 장사나 해 보시란다구 그런다더구나!..... 그렇다구 너라두 혹시 에미 애비가 사우 덕에 호강을 할려구 딸자식을 부둥부둥 우겨서 부잣집으로 떠실어 보낼려구 하거나 앓고 싶어, 어찌 생각이 들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어디 설마한들 백만금을 준다기루서니 당자 되는 사람이 흠이 있다든지, 또 꺼림칙한 구석이 있다면야 마른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일이지, 어찌면 너를 그런 데루다가 이 에미 애비가 보낼 생각인들 하겠느냐? 그저 첫째루는 너를 위해서 하는 혼인이요, 그래 네가 가서 고생이나 앓구 호강으루 살기두 하려니와, 또 그 사람이 밀천이라두 대 주어서 장사라두 하면 그게 그다지 나쁠 일이야 없지 않으나?”

유 씨는 바늘귀를 꿰는 척하고 잠깐 말을 멈추고 딸의 기색을 살핀다. / “글쎄 이 애야!” / 유 씨는 다시 바늘을 놀리면서 음성은 별안간 처량하다.

“..... 너두 노상 그런 걱정을 하지만 느이 아버지 말이다...... 그게 허구 다니는 꼬락서니가 그게 사람 꼴이더냐? 요 전날 저녁에두 글쎄 두루마기 고름이 뜬이진 걸 다시 달아 달라구 내놓더구나! 아마 누구한테 떡살잡일 당한 눈치더라, 말은 안 해두...... 아이구 그 빈차리같이<sup>2)</sup> 뱃삭 아웨 가지군 소 갈 데 말 갈 데 없이 다니면서 할 짓 못 할 짓 다야 하구, 그런 봉욕이나<sup>3)</sup> 당하구, 그러면서두 한 푼이라두 물어다가 어린 자식들 맥여 살리겠다구...... 휘유! 생각하면 애차럽구 눈물이 절루 난다!”

눈물이 난다는 유 씨는 그냥 맹송맹송하고, 초봉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좌르르 쏟아진다. 그것은 부친을 가엾어하는 눈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노상 그것만도 아니다. / 그는 모친에게서 결혼을 하고 나면 태수가 장사 밀천으로 돈을 몇 천 원 대주어서 부친이 장사 같은 것을 하게 한다는 그 말을 듣고는 다시는 더 여부없이 태수한테로 뜻이 기울어져 버렸다. 그거야 태수가 미리서 마음을 동요시킨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조건이고 보면 필연코 응낙을 앓던 못할 초봉이다.

그러나 시방 초봉이는 제 마음의 한편 눈을 감고서라도 태수한테 뜻이 있어서가 아니요, 그 유리한 조건 그것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해서나마, 안타까운 제 심정의 분열을 짐짓 위로하고 싶으리만큼 일변으로는 승재한테 대하여 커다란 미련과 민망스러움이 간절했다.

- 1) 간구(艱苟)하게: 가난하고 구차하게                      2) 빈차리: 회초리의 방언                      3) 봉욕(逢辱): 욕된 일을 당함.

**[바]**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뉘 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논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논제 II]**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